



고풍스런 건물이 가득한 아기자기한 도시, 퀘벡 시티

Quebec City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매력에 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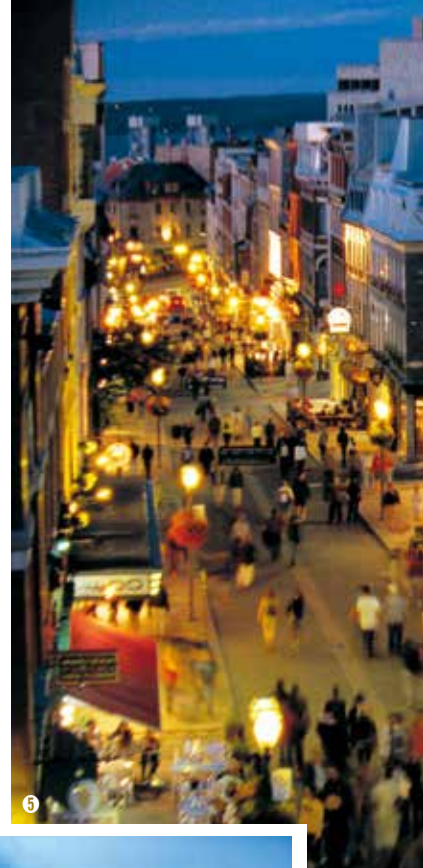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드라마 <도깨비>의 유명한 대사를 듣고는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하며 더 유명세를 탔던 퀘벡 시티에서는 정말 ‘모든 날이 좋을 만큼’ 여행하는 내내 눈이 즐겁고 감성은 말랑말랑해진다. 아름답고 여유로운 이 도시에서 행복 지수도 덩달아 높아지는 기분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리고 북미에서는 유일한 성곽도시로 퀘벡 시티는 옛 모습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다. 고층 건물로 획일화된 도시에 싫증난 사람이라면 또 정신없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피로해진 여행자라면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곳. 퀘벡 시티에서 좋은 날들로 여행을 채워보자.

글_하정화 객원기자 사진제공_캐나다관광청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 거닐어 볼까

캐나다 남동쪽에 위치한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도 무척 이국적인 곳이다. 1608년 프랑스 탐험가인 사무엘 드 샹플랭이 프랑스인들을 데리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퀘벡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 도시의 기원이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의 95퍼센트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언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식으로 사고하며 곳곳에 프랑스 문화가 가득하다. 파리에서처럼 제대로 된 크로와상을 맛볼 수 있는 퀘벡에서는 프랑스식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거리에 있는 알록달록 예쁜 표지판과 간판들이 불어로 적혀 있어서 파리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 퀘벡 시티가 캐나다 속 ‘작은 프랑스’로 꼽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파리의 예술적인 감성이 가득한 퀘벡 시티이지만 한때는 영토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1629년,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 싸움이 일어났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두 나라 사이에서 주도권이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1763년, 파리에서 열린 회담 결과 퀘벡 지역이 영국에게 넘어가게 됐다. 영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영토를 뺏기지 않기 위해 1765년부터 성벽을 쌓았으며 전체 길이가 4.6km에 달한다.



어쨌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도 프랑스 문화를 계속 지켜왔고 끊임없이 퀘벡 지역의 독립을 외쳤다. 지금도 퀘벡 주민들은 프랑스 문화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퀘벡 시를 중심으로 세인트로렌스강이 흐르는데 도시의 지대가 높은 곳은 어퍼타운, 낮은 곳은 로어타운으로 구분된다. 어퍼타운은 또 성곽을 중심으로 올드어퍼타운(구시가)과 신시가로 나누어진다. 퀘벡 시티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성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이다. 진짜 유럽 같은 퀘벡 시티의 구시가는 유네스코가 세계 보존 지구로 지정했을 만큼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장소이다. 18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퀘벡 시티 주요 관광지들이 모여 있는데 걸어서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또 구시가를 감싸고 있는 성벽길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도 추천한다.

구시가 여행의 시작은 다름 광장. 광장 주변으로 여러 갈래 나뉜 좁은 골목을 따라 아기자기하게 펼쳐진 여행지들을 둘러보자. 광장 한켠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센터가 있고 유명한 샤토 프롱트낙 호텔이 바로 앞에 위치한다. 광장 가운데에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바로 퀘벡 시티를 처음 만든 사무엘 드 샹플랭의 동상이다. 광장 주변에는 관광 마차인 칼레슈도 쉽게 볼 수 있고 시티투어 버스도 이곳에서 출발한다.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퀘벡 시티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올드어퍼타운을 걷다보면 어디서든 호텔이 잘 보여서 여행자들에게는 이정표와도 같은 곳.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호텔 덕분에 도시는 더 동화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이 이곳에서 회담을 가졌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1892년에 건축되기 시작해 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퀘벡 시티 유적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함부로 내부부를 바꿀 수도 없고,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앤틱한 가구, 로맨틱한 내부 장식들, 옛 것을 해치





①세인트로렌스 강이 흐르는 그림같은 풍경 ②샤토 프롱트낙 호텔 뒤편의 나무 산책로, 테라스 뒤프랭. 해가 질 즈음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③관광 마차인 칼레슈를 타고 도심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르다 ④퀘벡 시티를 상징하는 건물, 샤토 프롱트낙 호텔. 고성을 연상시킨다 ⑤구시가의 밤은 더 로맨틱하고 멋스럽다 ⑥아기자기한 간판이 가득한 프리 샵플랭 거리 ⑦퀘벡 시티에서는 프랑스 왕족을 상징하는 백합 문장이 담긴 주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다

지 않는 세련된 리모델링까지 외관만큼이나 호텔 내부도 멋지다. 퀘벡에 있는 호텔 중에는 숙박료가 가장 비싸긴 하지만 (보통 40~50만원) 큰 맘 먹고 하룻밤 묵어갈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하루 숙박으로도 호텔의 명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테니까.

아름다운 호텔의 전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면 테라스 뒤프랭을 추천한다. 이곳은 샤토 프롱트낙의 남쪽으로 길게 뻗은 400m길이의 나무판자 길. 산책하다보면 세인트로렌스강과 도심의 전경을 볼 수 있다. 테라스에는 벤치도 있어서 쉬어가기 좋고 날씨 좋은 날에는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도 덩으로 즐긴다. 어둠이 내린 저녁, 호텔 곳곳에 조명이 켜지면서 테라스 뒤프랭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무척 따뜻하고 낭만적이다.

다름 광장에서 5분 정도 걷다보면 시청이 있는데 샤토 프롱트낙 호텔 만큼이나 아름다운 건물이다. 언뜻 보면 성을 연상시키는데 1895년에 지어져 역사도 오래되었다. 투어를 신청하면 시청 내부도 꼼꼼히 둘러볼 수 있다. 울드어퍼타운 남쪽에 위치한 퀘벡 주지사당도 고풍스럽다. 관광객들이 '어쩔 이렇게 하나같이 예뻐 수 있을까' 퀘벡 시티를 돌아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낸다. 주의사당은 1886년에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건물 외관도 멋지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화려함에 탄성이 튀어나온다. 영어 무료 가이드 투어를 사전에 예약하면 주의사당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해 역사가 느껴지는 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의사당 1층에는 기념품 가게도 있는데 퀘벡 주를 기념하는 액세서리와 의류, 문구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의사당 건물 앞에는 퀘벡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분수가 있는데 많은 여행자들의 인기 포토 스팟. 작지만 참 아기자기하면서도 예쁘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 공유와 김고은이 여기 분수 앞에서 애절한 장면을 연출하며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주의사당 한 칸에 세워진 여성들의 동상도 눈길을 끈다.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도 여성 참정권이 가장 늦게 주장된 주인데 퀘벡 주

여성 참정권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동상으로 세워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

퀘벡은 프랑스 문화 덕분에 가톨릭 성당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퀘벡 노트르담 대성당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1647년에 지어졌으며 청동색 지붕이 특히나 아

름답다.

퀘벡 시티의 멋진 건물들을 눈에 담았다면 이제는 골목 골목의 매력을 느껴볼 차례. 사실 구시가는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만큼 어딜 가나 쇼핑할 수 있는 상점들이 골목 곳곳에 가득하다. 다름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생탄 거리는 많은 거리 예술가들이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 위해 모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색적이고 귀여운 간판들이 가득해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도 크다.

생탄 거리를 걷다보면 트레조르 거리와 만나는데 일명 '화가의 거리'라고 불린다. 상점 하나 하나가 다 갤러리인 것처럼 멋진 작품들이 상점 밖에 빼곡하게 걸려있다. 여기서 예술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구경하고 구입도 할 수 있다. 각종 인물화도 있고 퀘벡 도시 곳곳을 묘사한 아름다운 풍경화도 많다. 잘 얘기하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므로 예술가들과 흥정은 필수.

울드어퍼타운에서 푸니쿨라(짧은 등산 기차)를 타거나 아주 가파른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로어타운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구시가에 서도 가장 핫한 거리가 있다. 바로 프리 샵플랭. 좁은 골목을 따라 갤러리, 카페, 예쁜 상점이 죽 늘어서 있다. 생활 공예품이나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한참 동안 여행객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아기자기하고 개성 넘치는 간판들도 이곳 거리의 볼거리. 골목마다 작은 무대에서 거리 공연도 선보여 축제 기간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공연, 이벤트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8



9



10

⑧퀘벡 주의사당 앞에 있는 분수, 아기자기한 멋에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휴식처 ⑨옛 모습을 잘 간직한 구시가 골목 ⑩퀘벡 시티의 유명 벽화인 '퀘벡의 프레스코화'. 사실적인 묘사가 더 실감난다

퀘벡 시티의 명물을 찾아서

구시가를 걷다보면 화려한 프레스코화를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퀘벡 시티 여행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벽화들은 주로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해 더 친숙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퀘벡 시티 벽화의 기원은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역사가 깊다. 퀘벡의 겨울 날씨는 아주 추운 것으로 유명하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북쪽으로는 창을 내지 않았다고. 창문도 없는 험한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퀘벡 시티 벽화의 기원이라고 한다.

프레스코화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것은 '퀘벡의 프레스코화' 작품. 구시가의 루아얄 광장 서쪽에 위치하는데 5층 건물 벽면이 모두 벽화로 채워져 있다. 멀리서 봐도 입이 벌어지고, 가까이서 보면 더 감탄이 튀어나온다. 그림에는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를 비롯해 퀘벡에 처음 정착한 사무엘 드 샹플랭 등 퀘벡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프레스코화 안내판에는 그림 속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퀘벡의 역사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다. 벽화는 1990년에 완성되었으며 12명의 화가가 2500여 시간 동안 작업해서 완성했다고 한다. 창문과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 같다.

또 캐나다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메이플 시럽. 어느 도시에서나 기념품 가게를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이플 시럽인데 캐나다 원주민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원주민들이 단풍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바짝 졸여 먹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꿀이나 잼 보다는 덜 달면서도 맛과 향이 독특해서 더 인기를 얻는다. 또 캐나다 자체적으로도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메이플 시럽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도 무척 복잡하다고 한다.

퀘벡주는 온타리오주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메이플 시럽이 생산되는 곳이다. 매년 봄에는 농장들이 시럽 만드는 과정도 공개해서 여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퀘벡 시티 인근에 있는 메이플 시럽 농장을 방문하면 단풍 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시럽을 맛보고 구입도 할 수 있다. 또 퀘벡 시티에서도 시럽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도 있다. 메이플 시럽이 워낙 흔하다보니 요리를 할 때도 설탕 대신에 시럽을 주로 사용한다고.

또 퀘벡 지역은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 만큼 프랑스 요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다. 그리고 보통 유럽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공을 들이는 것과 달리 퀘벡 시티에서는 점심 식사를 거하게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런치가 디너 메뉴보다 더 특별한 경우도 많다고. 푸드 투어를 이용하면 메이플 시럽 전문점을 비롯해 여러 군데 음식점들을 둘러보면서 대표 메뉴도 맛볼 수 있고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요리도 조금씩 맛보게 된다. 어떤 식당을 가야할지 고민된다면 푸드 투어가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듯 퀘벡 시티에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걸어서 둘러보는 워킹 투어, 지붕이 뚫린 2층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에 내렸다 탔다 하면서 여행하는 홉온홉오프 투어, 소규모의 퀘벡 푸드 투어, 자전거 또는 스쿠터 투어, 와인 앤 나이트 투어 등등.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한다면 퀘벡에서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퀘벡 시티에서는 일년내내 흥미로운 이벤트도 많이 열린다. 특히 매년 1월 말에서 2월초까지 약 3주간 열리는 윈터 카니발은 퀘벡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다. 1894년 퀘벡 주민들이 즐겁게 겨울을 보내기 위해 작은 규모의 축제를 열었던 것이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축제로 발전했다.

축제의 상징인 '보넬'은 겨울의 왕이라 불리는 커다란 눈사람. 빨간 모자와 빨간색 띠를 허리에 두른 이 귀여운 캐릭터는 캐나다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그의 얼음궁전이 생 장 성모 옆에 해마다 멋지게 세



11 옛 모습을 잘 간직한 구시가 골목골목을 여행하는 즐거움 12 퀘벡 오픈이 열리는 경기장, 라발 대학교 스포츠 콤플렉스 13 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거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테니스 이벤트가 펼쳐진다



워지는데 매년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조각팀이 궁전 조각을 맡는다고. 또 퀘벡 주 의사당을 주변 10여개 장소에서 얼음슬라이드와 인간 볼링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스키나 보더들에게는 겨울의 퀘벡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터. 근교에 스키장으로 유명한 산인 몽 생탄이 있기 때문이다. 최장 코스가 5.7km에 달하고 50개가 넘는 슬로프가 있어서 멋진 산을 구경하면서 한적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보통 캐나다의 스키 시즌은 11월 중순부터 4월까지로 거의 일년의 절반,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여름에 퀘벡을 방문한다면 섬머 페스티벌 기간도 알아두자. 매년 7월 첫 주에 열리는 음악 축제로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악 축제로 꼽힌다고. 야외 공연장, 공원, 클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내 곳곳에서 콘서트가 펼쳐지고 퀘벡 시티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에 퀘벡 시티 근교인 몽모랑시 폭포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도 볼 만하다. 시원한 폭포,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밤을 선사한다.

〈이것만 알고 떠나자〉

가는 길 한국에서 퀘벡 시티로 바로가는 직항편은 없다. 인천~토론토 직항을 이용한 뒤 비행기를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 토론토까지 약 13시간 소요, 퀘벡 시티까지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소요. **현지교통** 버스와 페리가 운행되는데 페리는 퀘벡 시티 도심인 로어타운과 세인트로렌스 강 건너편 레비 지역을 연결한다. 페리를 타고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 투어버스도 여행자들에게 효율적인 수단이다. **기후** 여름 평균 기온은 27도 정도, 겨울에는 영하 17도정도까지 떨어져 아주 춥다. 7월과 9월 강수량이 많은 편. **통화** 캐나다 달러를 사용한다. **언어**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이다.

내셔널뱅크컵(National Bank Cup)은 퀘벡오픈이라고도 불리며 1993년에 처음 열리기 시작했다. WTA투어 인터내셔널 등급으로 열리고 있는데 대회는 퀘벡 시티의 라발 대학교 스포츠 콤플렉스의 하드 코트에서 치러진다.

Tournament Information

대회명칭 퀘벡 내셔널뱅크컵(National Bank Cup)

장소 퀘벡 시티 PEPS (Laval University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Complex)

기간 9월 10일~16일 **웹사이트** www.coupebanquenationale.ca

대회등급 WTA인터내셔널 투어 **총상금** 25만달러(약 2억8200만원)

드로 32S 16D **디펜딩챔피언** 알리슨 반 우이텐반크(벨기에)

캐나다테니스협회에서 발표한 출전 명단에 의하면 4명의 50위권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인데 1번시드를 받게 될 아나스타샤 파블류첸코바(러시아)는 이번이 첫 출전이다.

토너먼트 디렉터인 자크스 에리셋은 “내셔널뱅크컵은 퀘벡 지역의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요즘 여자 테니스는 어떤 대회라도 우승자를 예측하기 불가능할 만큼 변화도 많고 흥미진진하다. 9월에 열릴 내셔널뱅크컵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지, 유명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퀘벡 시티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에게 테니스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